

FOAM ARCHITECTS

PORTFOLIO. 2018

FOAM ARCHITECTS

유연한 삶의 바탕을 계획하는 일

장소는 주로 구축적인 형태, 혹은 제한적 상태로 귀결되지만, 그 안에 담기는 삶의 형식은 그 반대의 것, 부드럽고 유연한 것, 비확정적인 것, 가능성의 상태를 향해 나아가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간과 공간에 관련된 것들을 계획하는 일은, 이 두가지 상반된 성질의 것을 마주한 상태에서 꽤나 구체적인 구축을 통해 앞서 언급한 모호한 것들이 공간 내에 작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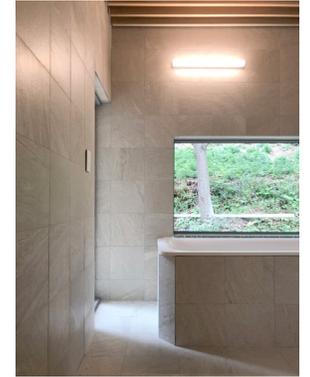
폼 아키텍츠는 설계를 통해 공간을 구축하고, 또한 그 안의 유연한 것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고민합니다.

주거, 업무, 문화, 상업공간 등 다양한 용도와 규모의 공간을 다루고, 건축, 인테리어, 가구 및 요소디자인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A place usually leads to a constructive form or a restricted state, but the mode de vie it contains has power to move toward the opposite, the soft and flexible, the indeterminate, and the state of possibility.

Planning spaces and things related to them is, in the face of these two conflicting qualities, a matter of contemplating how these ambiguities interact in a space through a relatively concrete constr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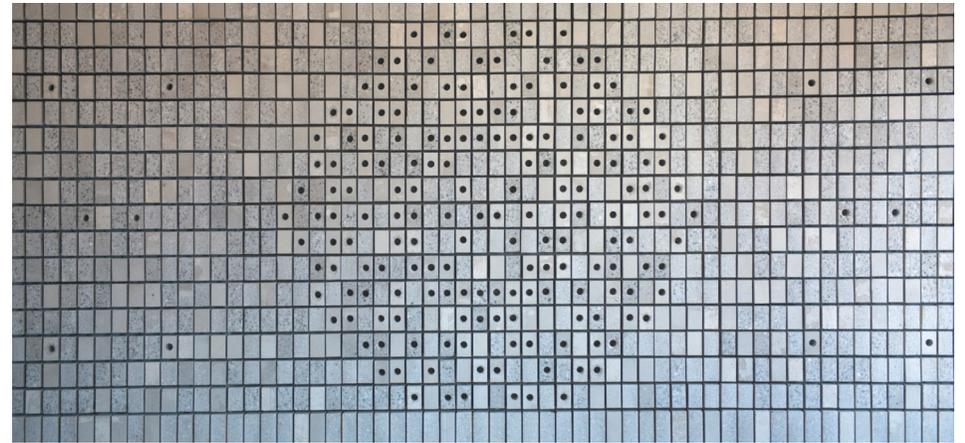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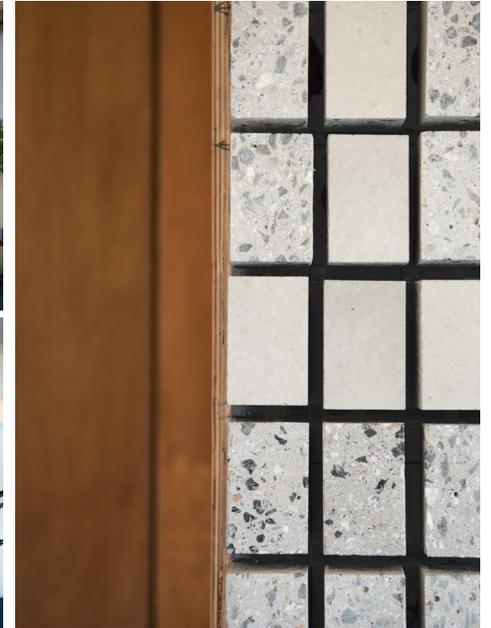
Foam Architects plan space through design while considering the way the flexible stuff in it operates. We deal with spaces with various uses and size, such as residential, business, cultural, and commercial space, and works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interior design, furniture and element design.



가평 단독주택 2018

가평주택은 건축주 부부의 은퇴 이후의 삶의 방식을 고민한 주택입니다.
 두 건축주는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아 온 양지 바른 땅에,
 주변 환경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를 원했고,
 이에 따라 최소화된 크기와 장식, 최소한의 가구를 둔 간결한 집을 제안하고,
 선릉을 통해 외부와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주택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림요가 2017

이림요가는 30평 남짓한 공간 안에 카페와 요가원 각각을 운영하되, 성격이 다른 두 공간을 적절히 구분하여 각 공간 각각이 적합한 환경을 갖추길 바라는 간단한 요구에서부터 출발한 작업입니다.

이 요구를 바탕으로 내부를 동서로 나누어, 요가수련실은 공원과 접하는 동쪽에 배치하여 날씨가 좋을 때는 공원에 접한 창을 열어 바람을 쐬며 수련할 수 있게 하였고, 카페는 출입구쪽에 배치하여 서너개의 테이블을 둔 독립된 아늑한 카페로 운영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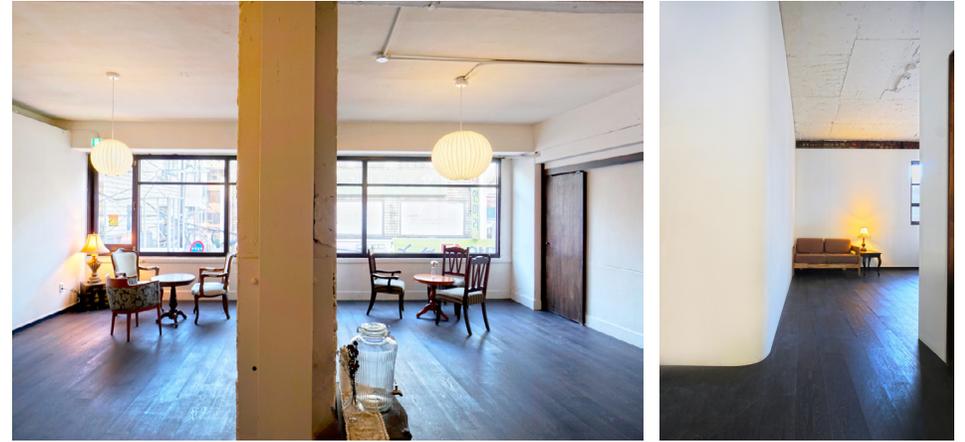
공원이라는 중요한 외부요소와 감응하기 위해, 나무와 돌, 회벽 등의 그 물성이 선명한 자재를 사용하였습니다.



제주 도립 김창열미술관 2013

현상설계로 나온 김창열미술관 설계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김창열 화백의 사유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한 작업입니다. 설계를 진행하며 화백의 사유세계를 이해해나가는 과정에서, 김창열 화백의 대표적인 물방울 그림 속에 비어있는 듯 생명에 대한 잠재성으로 가득 차 있는 어둠과 물방울을 통해 비로소 발현하는 빛을 드러내는 매개체로서의 물방울을 그리고 있음을 이해하고, 건축 공간 안에서 빛과 어둠의 상보적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건축을 구현하기 위한 고민이 담긴 작업입니다.





고소운 2018

“오래된 듯하지만, 간결하게 정리된 느낌이 전해지는 공간을 설계해주었으면 합니다.”

고소운이라는 카페 설계를 맡긴 클라이언트는, 이처럼 다소 아이러니하지만 원하는 공간의 방향을 명확하게 전달해주었습니다. 이에, 기존의 낡은 기둥과 벽체, 천정을 고스란히 드러낸 채로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하고, 하얀 벽체를 덧댄 사이사이로 이전의 낡은 것들이 중첩되어 드러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공간을 채우는 각각의 가구들은, 클라이언트가 방산시장 등을 돌아다니며 손수 구해 온 중고 가구들로 채워 오래되어 보이지만 결코 너저분하지 않은 공간을 완성하는 효과적인 요소로 사용하였습니다.

OTHER WORKS 2018



롯데 L7 청기와호텔 (2014)



신림동 주택 옷장 (2017)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현상설계 (2014)



가평주택 가구 (2014)



광복회관 (2014)



헤리티지투모로우 한옥설계 (2013)

조영우 CHO YOUNG WOO, CHIEF ARCHITECT

1983년 출생

국민대 실내디자인학과 학사 졸업

도시건축 소도 디자인팀 재직 (2009 - 2012)

건축사무소 아뜰리에 리옹 설계팀 재직 (2012 - 2013)

건축사무소 아키플랜 디자인팀 재직 (2013 - 2017)

건축사무소 FOAM ARCHITECTS 개소 (2017 - 현재)

-
-

김혜민 KIM HYE MIN, ARCHITECT

1988년 출생

건축사무소 아키플랜 레저팀 재직 (2013 - 2017)

건축사무소 FOAM ARCHITECTS 공동 개소 (2017 - 현재)

-
-

주요작업

동탄2 워터프론트 현상설계 (2010)

부산 가덕도 개발개념 현상설계 (2009)

아르코미술관 퍼블릭아트 오픈콜 (2012)

남영동 롯데리아 사옥 (2013)

제주 도립 김창열미술관 (2013)

롯데 L7 청기와호텔 (2014)

무주 덕유산리조트 (2014)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현상설계 (2014)

KAIST 기계공학동 리모델링 (2015)

노보텔엠배서더 서울동대문호텔 (2015)

이림 요가원 (2017)

가평 단독주택 (2018)

-
-

주요작업

롯데 김해워터파크 (2013)

제주 한라 힐링파크 (2013)

성공회대학교 기숙사 (2014)

무주 덕유산리조트 (2014)

제주 부영 워터파크 (2015)

가평 단독주택 (2018)

-
-

